

오늘은 비가 왔다. 내일은...

2019. 12. 12

가톨릭대학교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
201620807/안창신

기획구성안

1. 작품개요

제목	오늘은 비가 왔다. 내일은...
장르	로맨스, 타임루프
플랫폼	영화
러닝타임	약 110분 (1막 20분, 2막 60분, 3막 30분)
로그라인	뭐든 한 번에 못하는 남자가 타임루프 통해 사랑을 한다면.
주제	사랑은 지나가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뜨겁게 사랑해보라.

기획배경 및 기획의도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어바웃 타임’등의 로맨스 장르를 보고, 사랑과 시간에 다룬 글을 써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나에게 사랑과 시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소재와 구성의 특징 및 장점	시간의 반복을 이용, 독자로 하여금 살면서 한번쯤은 꿈꿔왔던 일이나 과거의 흑역사를 지우는 일을 바래왔던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알 수 없는 일들을 차후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의문을 가진 독자가 마지막에 해답을 해소 할 수 있는 구성이다.

2 - 1. 등장인물 소개

최성욱 (남.32)

건축회사의 설계사. 살아오면서 모든 일에 대해 많은 실수를 한다. 대체로 성공확률은 10퍼센트. 성공을 바라는 부모님 밑에서 차남으로 태어나 성공하는 형과 비교되어 사랑을 받지 못한 인물이다. 사랑받기 위해 남들보다 10배의 노력을 하며 살지만 대학교 시절 첫 여자친구에게 9번째 노력에서 차이게 되고 이후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물.

김해린 (여.27)

태어나서부터 몸이 약했다. 아플때마다 슬퍼하는 부모님을 위해 밝고 명랑함을

유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부터 불치병이 자라났다. 이후에도 밝은 모습을 유지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프고 힘들어 언제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

강예림 (여.27)

해린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이다. 강한 성격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듯 했으나 밝은 해린이 다가와 주었고 친구사이가 되었다. 해린에게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여 누구보다 해린을 생각하고 아껴주는 친구이다.

김강민 (남.56) , 최숙미 (여.53)

해린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어려서부터 아파왔던 해린을 극심히 아낀다. 김강민의 요식업 사업 성공으로 집안은 부유하지만 집의 분위기는 해린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하다. 가끔은 해린의 병세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한다. 아프지만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해린에게 고맙고 미안 해 한다.

허민 (남.36)

성욱과 같은 건축회사에 근무하며 성욱의 상사.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성욱을 매일 갈구는 인물이다. 하지만 성욱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성욱에게 칭찬을 하기도 하는 인물.

2 - 2. 등장인물 관계도



3. 세계관 설정

배경은 현대사회의 서울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작중 '시계'가 등장하는데 손목시계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이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그 시간에 계속 머무를 수 있거나 마지막으로 시간을 돌리기 전에 시간까지 돌아갈 수 있고 최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 1년이다.

(Ex: 2019년 12월 25일에서 살고 있다면 2018년 12월 25일까지 시간여행이 가능하고 그 과거부터 계속 시간을 보내거나 2019년 12월 25일까지로 되돌아 올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당시의 나에게 '빙의'하게 된다. 과거로 돌아가 계속 살아간다면 상관없지만 과거로 돌아가 다시 미래로 돌아오게 되면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내가 '빙의'되어 있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스토리라인

1막

숙취에 시달리는 성욱은 잠에서 깬다.

그리고는 바닥에 널부러진 건축도안과 핫식스 캔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향했다.

탁자 위에 놓여진 병에 담긴 시계를 보고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어제 회사 지각부터 상사의 구박까지 되는 게 없었던 성욱은 야근을 마치고 비오는 한강 근처 포차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다 시계가 담긴 병을 발견하고는 주웠었다.

기억이 부분적으로 나는 성욱은 어제의 일에 자괴감이 들고 주워온 시계를 다시 제자리에 되돌리기로 한다.

핸드폰을 챙기려고 보니 핸드폰의 액정도 깨져있다. 어제는 되는 게 없었던 날이었으리라 생각하며 성욱은 나갈 준비를 했다.

아침 11시가 되서야 성욱은 어제 거닐던 한강공원에 도착하였다.

노래를 들으며 주위 풍경을 보고 걷던 성욱은 시계를 주웠던 자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성욱에게 한 여자가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젯밤 성욱이 자신을 끌고 안으며 울었다고 말하는 여자, 성욱은 어제 술에 취해 끊긴 기억 속에서 실수를 범했다 생각하여 사과를 한다. 커피한잔과 대화를 부탁한 여자, 둘은 양화대교 위 카페로 향했다.

시작부터 커피를 잘못 주문한 성욱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여자는 자신을 김해린이라 소개한다.

어제 왜 울었는지 물어보는 해린의 질문에 성욱은 어제 있었던 일과 자신의 삶이 고달파서였다고 추측하여 이야기 해준다. 다시 해린은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상하게 그냥 포기가 싫다’고 대답한다.

성욱의 이야기를 들은 해린은 성욱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어느정도 잡담을 나누다 해린은 성욱에게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한다. 당황한 성욱은 고개만 끄덕인다.

이후 해린의 리드 하의 데이트를 하게된 둘, 성욱은 자신의 사소한 실수에도 웃으며 넘어가는 해린에게 호감이 생겨간다. 헤어질 시간이 온 둘, 성욱은 용기를 내 내일 다시만날 것을 제안한다.

해린은 웃으며 이를 수락한다. 집에 돌아온 성욱은 생애 첫 한번에 성공한 데이트 성립에 기뻐하며 데이트 플랜을 짜지만 밤 11시가 지나서 해린에게 데이트 취소 문자를 받는다.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감이 든 성욱은 낮에 미처 버리지 못했던 병에 담긴 시계를 찾았다. 해린을 만나게 해준 시계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던 성욱은 시계가 맞지 않음을 깨닫고 시계의 시간을 맞추고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성욱은 놀라 눈을 떴다.

눈을 뜬 성욱의 앞에는 낮에 본 카페의 종업원이 서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성욱은 낮에 왔던 양화대교 위 카페에 있었다. 입었던 옷도, 시간도 똑같았다. 다른건 아까 만졌던 손목시계가 걸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당황하던 성욱에게 카페 종업원이 주문할 것을 물어보자 성욱은 아까 틀렸던 주문을 실수 없이 해냈다.

커피를 받은 성욱은 아직도 당황스러웠지만 낮과 같은 자리에 해린이 앉아있었다. 성욱도 그녀를 따라 자리에 앉았다.

낮과 똑같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해린, 이후의 대화에서 성욱은 낮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어찌된 일인가 고민하던 성욱은 지금이 해린에게 잘보일 기회라 생각한다. 낮과 똑같은 대화 후 해린이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한다.

성욱은 타임리프 전 봐둔 데이트 코스를 생각하며 흔쾌히 나가자 한다.

성욱은 낮에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린을 리드한다. 성욱은 이전의 데이트와 비교해 실수를 확실히 줄여나갔다.

그리고 다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성욱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두번째 데이트 권유, 성욱은 해린에게 내일 꼭 다시 만나자고 권유하고 해린은 이를 수락한다. 성욱은 집에 돌아와 밤11시만을 기다렸다.

오지 않는 그녀의 문자, 새벽까지 기다리다 성욱은 그대로 잠이 든다. 아침에 정신이 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다.

한통의 문자가 와있었다. 성욱은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했다. 오늘 어디서 보냐는 해린의 문자, 성욱은 핸드폰을 끌어안으며 웃었다. 얼마나 문자를 기다렸는지, 어떤 답장이 올것인지 조바심을 내던 자신이 이미 해린씨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성욱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뛰쳐나갔다. 그리고 해린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있는지 물어보고 그곳을 향해 뛰었다. 어느덧 신호등에서 마주한 둘. 성욱은

숨을 고르고 어제 새벽 자신이 해린의 연락 애타게 기다렸음을 말한다. 해린이 당황한 사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며 성욱은 걸어간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그녀를 기다린 애뜻함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놀라는 해린, 그녀를 바라보는 성욱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2막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성욱은 침대에 누워 손목에 차여진 시계를 보았다. 타임리프를 했을 때 함께 있었던 시계가 의심스러웠던 성욱은 뉴스를 틀고 시계를 5분전으로 맞춰다..그리고 눈을 감고 뜨자 앵커가 5분전의 말을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성욱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시간을 뒤로 맞추고 눈을 감고 뜨면 맞춰놓은 시간으로 돌아갔다. 성욱은 시계를 끌어안았다. 이 시계만 있다면 지난날의 자신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성욱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매일같이 회사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을 시간을 돌려 만회했다. 시간을 돌릴 때마다 바뀌는 회사사람들의 반응은 재밌기까지 했다. 해린을 만날 때에는 더욱이 세심해졌다. 전 여친과 같이 자신을 떠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서 성욱은 더 많이 시간을 되돌렸다. 바뀌는 시간 속 해린이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성욱은 안심해갔다. 해린의 눈에 비친 성욱은 자신을 위해 매 순간 신중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해린은 성욱이 하루하루 지쳐가는 게 느껴졌다.

성욱은 ‘시계’가 생긴 이후 자신이 현재 어떤 시간에 머무르고 있는지 잊혀질 때가 많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몇 일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헛갈려했다. 또한 남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살며 피곤해졌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대로 그만두기는 싫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기뻐하는 해린을 보면서 더욱 지난날의 자신이 싫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욱의 X개월은 이따금씩 뒤로 흐르며 앞으로 흘러갔다.

승진을 하고 부하직원도 생겼다. 해린과의 연애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이번에 들어온 XX기업의 사옥 신축 프로젝트 최근 일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성욱에게 맡기기로 했다. 회사와 성욱의 능력을 인정받을 중요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까다롭고 촉박한 프로젝트였다. 성욱은 이후에 있을 평가를 위해 하겠다고 수락한다. 제출한 도안이 거절당하면 시간을 돌려 다시 도안을 짰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도안을 보내 줄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방향성을 제시해준 대로 가면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무리 시간을 돌려도 결과는 ‘취소’였다. 기업 측에서 생각하는 건축도안은 애초에 정해져있지 않고 무리한 요구만을 바라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욱의 스트레스는 자연스레 높아져만 갔다.

마지막으로 성욱을 만나고 1주일이 지난 뒤 해린은 성욱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 마치 다른사람 같았다. 성욱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1주일만에 심하게 피곤에 절여있어 보였다.

해린이 성욱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하지만 그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라졌음을 느꼈다. 일주일 같은 하루를 살며 늘어가는 건축 도안처럼 성욱의 스트레스도 늘어갔다. 해린과의 만남에서도 시간을 돌리는 횟수가 줄고 있었다. 실수를 할때면 가끔은 미안이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넘기기도 했고 어쩔때에는 완벽한 ‘결과’만을 만들었다. 해린의 머릿속, 노력하던 성욱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렇게 다시 3주일이 지났다.

헤어지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건 해린이었다.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해린의 이별통보에 성욱은 미안하다며 해린을 붙잡았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해린의 얼굴에서 전 여자친구의 얼굴이 보였고 성욱은 손을 놓게된다.

집에 돌아온 성욱은 소파에 누워 전 여자친구를 떠올렸다.

‘넌 뭘 위해 노력하는데?’, 헤어지면서 전 여자 친구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직까지도 성욱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며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해린을 만나면서 자신이 변한게 하나 없다는 것에 절망했다. 성욱은 진실하게 해린을 마주하고자 시계가 아닌 핸드폰을 잡았다.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다. 성욱은 카카오톡의 ‘1’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 잠이들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났지만 다른 문자들만 와있고 해린에게서의 문자는 오지 않았다. 성욱은 해린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생각하여 답장이 올 때까지 일에 매진하기로 했다. 그날 밤까지 성욱은 일에 매진했다. 얼마나 책상에 앉아있었는지도 모른채 건축 도안들을 그려갔다. 몇 개의 도안을 그려내고서야 잠시 눈을 감았다.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다시 눈을 뜬 성욱은 해린에게서 온 답장일까 생각하여 곧장 문자를 확인했다. 하지만 평범한 스팸문자였다.

실망한 성욱의 눈에 일에 집중하다 못 본 다른 문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스팸문자들, 그리고 그중에서 수신자 제한으로 온 문자가 있었다. 전화번호, 그리고 해린이 사고가 났다는 문자가 적혀있었다.

걱정과 불안이 급습하고 성욱은 조심스럽게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전화는 해린이 아닌 낯선 여자가 받았다. 해린의 사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전하자 여자는 울면서 화가 난듯이 지금 볼 수 있냐고 말했다.

저녁이 다되가는 시간, 성욱은 인근 카페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성욱의 뺨을 쳤다.

해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사고가 난 걸 왜 이제 물어보냐고 화를 내는 여자를 보며 성욱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성욱은 여자를 진정시키고 자신에게 상황을 말해달라 부탁했다. 여자는 화가 풀리진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강예림', 해린의 오랜 친구였다. 성욱은 해린은 어디있으며, 어떤 사고가 왜 났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예림은 해린의 부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이 이상 해린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카페를 나갔다.

성욱의 걱정은 더욱이 커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해보이던 해린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성욱은 시계를 돌리기로 했다.

해린이 이별통보를 하는 시간으로 시계를 돌린 성욱, 손을 붙잡고 해린은 울고있었다.

다시 보는 해린의 눈물이 마음 아팠지만 지금은 사고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떠나려는 해린의 손을 놓치 않고 해린을 마주보았다. 이대로 못 보낸다고 말하며 해린에게 자신의 최근 말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안하다 사과했다. 그리고 사고시간을 피하기 위해 해린과 더 대화를 하기로 한다.

지난번 보다 1시간정도 더 늦어진 시간, 성욱은 헤어지려는 해린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

우느라 지쳐보이는 해린을 부축하며 집에 대려다 준 성욱은 해린과 화해하고 사고도 피해 안심하며 집에 들어온다.

하지만 다음날, 해린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도 소식이 없게된다.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해린, 성욱은 다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예림에게 전화를 시도했다.

예림은 전화를 받자마자 누구냐 물어본다. 해린의 남자친구임을 밝히고 해린과의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하자 예림은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말하고 해린과 다시 만나지 말라며 전화를 끊는다.

전화를 끊은 성욱은 혼란에 빠졌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해보지만 감이 잡히지 않았다. 성욱은 일단은 시계를 돌려 집에 대려다 주는 시간으로 돌렸다.

눈을 뜬 성욱은 해린의 집앞에 해린과 마주보고 서있었다. 성욱은 해린의 손을 붙잡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몰랐다.

왜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인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미래에서 온 성욱은 물어볼 수 없었다.

성욱은 해린에게 조심스레 자신에게 해줄 말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해린은 성욱을 보고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그런거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히 가라며 웃는 해린의 손을 다시 잡으며 내일 보자는 말과 함께 헤어졌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서도 해린과의 연락은 달지 않았다.
성욱은 출근도 안한채 침대에 앉아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널부러져있는 건축 도안들과 핫식스 캔들이 눈에 들어왔다.
생각을 정리할 겸 쓰레기들을 주웠다. 떨어진 캔을 분리수거하고 도안들을 버리려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몇몇 건축도안은 지금껏 그린적 없는, XX기업에서 의뢰받은 도안들이었다.
방정리를 잘 하지 않는 성욱이었지만 그 도안들은 처음 본 도안이 맞았다.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잘 적혀있었다.
의아함을 품고 도안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지금껏 만들어낸 도안들보다 훨씬 좋은
도안들이었다.
성욱은 도안을 회사에 바로 가져가려 했으나 잠시 고민하다 시계를 잡았다.
이 도안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선은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였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몇일 지나지 않은 날의 아침으로 시계를 돌렸다.

방에는 도안들이 널부러져있고 그곳에는 아까 발견한 XX기업의 도안들이 있었다.
성욱은 곧장 회사로 향했다. XX기업에 도안들을 보내자 하나의 도안이 통과가 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자는 소식을 받았다. 주위 동료들이 얼마 안되서 일을 수행해내는
성욱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성욱의 머릿속에는 약 3주뒤의 있을 해린과의 일만
멤돌았다.
회식자리도 피하면서 집에 돌아온 성욱은 해린과의 연락두절을 피하기 위해 지난
3주의 실수를 되돌아 보며 계획을 세웠다. 처음 해린이 이별을 말했을 때를 생각하자
성욱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게되었다.
해린이 성욱을 보고 가장 좋아했던 것은 '노력'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난 3주간의
해린과의 만남은 그저 '완벽함'을 추구한 만남이었음을 깨달았다.
해린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자신만의 생각으로 해린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깨달음 속에서 성욱은 앞으로의 2주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자 손목에 차고있던 시계를 벗어 탁자위에 올려놓았다.

성욱에게 남은 약 2주의 시간, 성욱은 해린을 만나면서 갖은 실수를 하였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노력하는 태도로 해린을 대했다.

해린은 사귀고 나서 실수를 하지않던 성욱이 실수하는 모습에 조금 놀라기는 하였지만, 성욱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져 계속 웃음을 이어갔다.

성욱의 실수를 달래고 위로해주고, 이따금씩 해린이 하는 실수에는 같이 웃으며 넘어갔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해린이 이별통보를 한, 연락이 두절되는 날이 다가왔다. 성욱의 눈에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해린이기에 이번만큼은 아니라 생각되었지만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었다.

지난번 이날은 일 때문에 해린을 신경 못 쓰거나, 신경을 썼어도 이별을 각오하며 눈물을 흘리는 해린의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 생각했지만, 오늘로 만나는 해린의 상태는 확실히 좋지 못했다.

무리해서 나온 느낌이 가득했다. 성욱은 해린에게 들어가서 쉴 것을 제안해 보았지만 해린은 괜찮다며 거절한다.

비록 몸은 좋지 않았지만 웃음은 잃지 않은 해린, 그렇게 데이트를 보내게되고 성욱은 지난 ‘오늘’들 보다 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해린을 집에 바래다 주기로 된다. 그리고 해린의 집 근처에서 해린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

갑작스러운 해린의 기절에 성욱은 놀라 해린을 끌어안고 의식을 확인해보지만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성욱은 급한대로 해린을 업고 택시를 찾았다. 근처 응급실로 가는 도중, 오늘 아침 해린을 집에 보내지 않은걸 후회하는 성욱, 하지만 성욱의 손목에는 시계가 걸려있지 않았다.

3막

응급실의 병상에 누워있는 해린의 손을 붙잡으며 앉아있는 성욱에게 해린의 주치의를 자처하는 의사가 다가왔다.

그리고 해린에 관한 이야기해주었다. 해린이 태어나서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고등학교때 불치병이 걸리고 상태가 계속해서 안좋아지고 있던 것, 그리고 최근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듣게된 성욱은 해린의 손을 잡은채 한참을 울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해린이 정신을 차렸다.

해린과 성욱이 눈을 마주치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잠시 후 해린의 부모님과 예림이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해린을 보며 걱정했다며 우는 해린의 부모님과 예림은 진정이 되고 나서야 성욱과 인사를 했다.

그리고 예림은 잠시 후 성욱을 병원 밖으로 불러냈다.

예림의 입장에서 첫 만남인 성욱에게 자신이 해린의 고등학교 친구라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예림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해린은 예림에게 최근 병세가 악화되었고 언제 큰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말하며 예림에게 자신에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성욱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었다는 얘기를 해준다. 그 이유는 해린은 가까운 미래,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성욱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성욱은 이제서야 모든게 이해가 됐다. 지난 ‘오늘’들도 해린은 쓰러졌었고, 이후 해린의 소원대로 성욱과의 연락은 두절됐던 것이다.

‘해린은 자기를 그저 연락을 끊은 나쁜 여자로 남기를 바랬던 것일까’, ‘왜 자신에게 자기가 아픈 걸 말해주지 않았던 것일까’ 등 복잡한 생각에 잠기고 만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해린의 병세가 악화가 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예림이 자리를 뜨고 복잡한 심정으로 고민하던 성욱은 시간을 되돌리기로 한다. 해린을 사귀기 전으로 돌아가 자신을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해린과 있던 해린의 부모님이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해린이 성욱을 찾는다고 전해준다.

해린의 병실로 간 성욱은 해린의 병상 옆에 앉았다.

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성욱은 해린에게 ‘왜’라는 말을 했다.

성욱의 ‘왜’에 해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성욱과 처음만난 날 너무나 힘든 삶을 포기하고 한강에서 자살하려 했었다는 것, 성욱을 두번째 만났을 때 성욱의 포기하지 않는 삶에 흥미를 느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만나면서 노력하는 성욱의 모습에 자기 자신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와 성욱을 만나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성욱에게 자신이 아픈걸 이야기하면 떠나갈까봐, 너무나 사랑해서 이야기를 못했다는 해린을 보며 성욱은 그 자리에서 울고 만다. 새벽이 되어서야 성욱은 집에 돌아왔다.

방으로 가는 성욱의 눈에 탁자 위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성욱은 시계를 잡았다.

둘이 만나기 전의 시간으로 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한 찰라, 해린이 자신을 만나 가장 행복했었다는 말이 머리를 채웠다. 성욱은 결국 시계를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 수 밖에 없었다.

이후의 나날, 성욱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퇴근을 하면 바로 해린에게 달려갔다. 해린은 더 이상 병원에서 나갈 수 없었기에 성욱은 밖에서 일어난 일을 해린에게 말해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린의 병세는 악화되어갔다. 그리고 성욱은 의사에게 해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집에 돌아온 성욱은 소파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해린과의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그러던 중 XX기업의 건축 도안과 수신자 불명의 문자가 떠올랐다.

성욱은 그 정체불명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였다. 생각의 흐름 속에서 성욱은 무언가를 눈치 챌듯 시계를 들어 시간을 돌렸다.

눈을 감고 뜨자 성욱은 성욱의 예상대로 한강의 산책로에 서있었다.

술 마신 직후의 몸이라 지끈거리는 머리, 그리고 한손에는 손목시계가 담신 병이 있었다.

성욱은 망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달리는 와중에 핸드폰을 꺼내 수신자제한으로 자신에게 몇 달 뒤로 예약문자를 설정하였다. 문제의 내용은 예림의 번호와 해린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다.

문자를 보내고 달리던 성욱은 넘어지고 핸드폰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비를 맞으며 일어나는 성욱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있었다. 성욱은 일어나 핸드폰을 줍고 해린에게 향했다.

그리고 저 멀리 둘이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우산을 쓰고 한강을 바라보는 해린이 서있었다.

눈물이 끓어오르며 해린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이내 해린의 앞에선 성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끌어안았다. 해린은 갑작스레 끌어안으며 우는 남자에 당황했지만 이내 곧 웃으며, 괜찮다며 성욱의 등을 토닥여주었다.

성욱은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해줄 해린이 고마워서, 앞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해린을 위해 그저 한참을 울었다. 어느정도 진정이 된 성욱은 해린에게 미안하다고 짧은 인사를 한 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성욱은 손목시계가 담긴 병을 탁자위에 올려두었다.

곧장 책상에 앉아 자신이 본 XX기업의 건축도안을 그렸다. 문자와 도안, 그리고 해린을 끌어안은 것 전부 미래의 자신이자 오늘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에게 준 선물이자 메시지였던 것이었다. 비가 그치고 여명이 밝아올 때 성욱은 다 그린 건축도안을 바닥에 살포시 던졌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 누워 시계를 맞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늘’로 돌아왔다.

해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얼마남지 않았던 해린을 위해 성욱은 휴가를 내었고,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해린은 성욱에게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해준 성욱이 평생 자기만을 사랑해줄 것을 원치 않았다. 대신 성욱이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성욱은 해린의 말을 가슴에 묻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성욱은 해린을 처음만난 한강이 보이는 장소의 벤치에 앉았다. 주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 성욱은 병속에 담긴 시계를 강으로 던졌다. 누군가가 다시 시계를 주워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를 바랐다. 성욱은 한강을 한참을 바라보며 해린과의 지난 시간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런 성욱에게 한 여자가 다가가고 있었다.

트리트먼트 예시

흘러가는 시계소리 속에서 성욱은 눈을 떴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난 뒤 혼자 술을 마셨고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으며 한강을 걸었던 기억까지는 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나는 기억과 숙취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러웠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건축 도안들과 핫식스 캔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숨을 쉬며 다음에 치우는 것으로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따금 발에 밟혀 붙어버리는 건축 도안들을 발가락으로 띄어내며 눈이 반쯤 감긴 채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르지 않고 바로 마셨다. 서서히 눈이 떠지면서 탁자위에 있는 병 속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한번 한숨을 쉰다.

부분적으로 떠오르는 어제의 기억, 한강공원의 길가에 있던 병을 주웠던 기억이 있다. 숙취도 풀 겸, 모처럼의 쉬는 날이다. 성욱은 시계를 제자리에 두기위해 한강공원으로 되돌아 갈 것을 결심했다. 핸드폰을 들자 액정이 깨져있다.

“어제는 참 뭐같은 날이었구나“

성욱은 나갈 채비를 채비를 했다.

성욱은 오전 11시즈음 되어서야 한강에 도착하였다. 밤에 내린 소나기의 빗물이 아직 마르지는 않았지만 구름 한점 안보이는 화창한 날씨이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이따금씩 연인의 모습들도 보인다. 지난주에 새로 산 에어팟으로 노래를 듣고, 편의점에서 산 바리스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공원의 산책로를 걷는다. 자전거 연습하는 아이가 핸들을 꺾지 못하고 성욱 쪽으로 온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 옆으로 피해 넘어질 것 같은 아이를 붙잡아 준다. 미쳐 아이를 따라잡지 못한 아이의 부모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넨다. 성욱 역시 괜찮다며 가족을 보낸다. 다시 자전거에 오르는 아이와 그 부모를 보며 흐뭇해 하면서도 내심 부러워한다. 5번째 노래가 끝날 때 즈음에 어제 시계를 주웠던 장소에 도착하였다. 난간 뒤로 보이는 한강은 비가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다. 비가 올 때에는 떨어지는 빗물을 모두 머금으며 흘러간다, 그 모습은 아픔을 끌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창한 날의 한강은 맑은 하늘을 머금고 있어, 왠지 모르게 긍정을 품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한참 한강을 보고 생각의 잠겼을 즈음, 성욱의 눈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입을 움직이는 걸 보고 에어팟을 뺐다.

에어팟을 빼는 성욱을 보고 여자는 웃으며 다시 말했다.

“이제 좀 괜찮으신가 봐요?“

성욱은 짧은 시간, 자신의 모든 기억을 되짚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눈앞의 있는 여자는 초면이었다. 성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희가 만난 적이 있었나요?”

여자는 살짝 놀란 듯 되물었다.

“어제 기억 안나세요? 술을 드셨나.....?”

그 말을 들은 성욱은 어젯밤 자신이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겼음을, 그 끊긴 기억 속 이 여자와 만났음을 직감했다.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술을 좀..... 혹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여자는 어색하게 웃는 성욱을 보고는 크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맞네! 술마신 거! 아, 그쪽이 저를 끌어안고는 한참을 우셨어요. 얼마나 놀랐는데요”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성욱의 멘탈은 무너지고 말았다.

술을 먹고 처음 보는 여자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더 큰 문제는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다.

주사가 심한 편은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결국 처음 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말았다. 뉴스에서 ‘술에 취해서...’라고 말하던 사람들을 욕하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다.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될지....”

성욱은 고개 숙여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여자는 성욱이 고개를 숙인 것에 놀랐지만 곧 입을 열었다.

“그러면 커피 한잔 사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얘기도. 이쪽은 심심해서 죽을 거 같거든요”

성욱은 시계를 제자리에 두는 것도 잊은 채로 여자와 양화대교 위 카페로 향했다.

성욱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오고,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채 침묵 속에서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해린이예요. 김해린.”

“네?”

“제 이름이요. 김해린“

“아.....저는 성욱.....최성욱입니다.....”

해린은 통성명을 하고는 커피를 한모금 마셨다.

“모카네...”

“네?”

“카페모카요. 라떼를 시켰는데....“

성욱은 자신이 가져온 커피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모카도 좋아해요“

해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던 성욱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해린은 살짝 웃으며 성욱에게 말을 건넸다.

“어제는 왜 그렇게 우신 거예요?”

성욱에게 어제 울었던 기억은 없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생긴 기억의 공백 속에서 자신이 울었다면 그 이유는 아마 정해져있었다.

성욱은 해린에게 어제 아침 지각을 한 것, 상사에게 깨진 것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과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천천히 이야기 해주었다. 처음은 어제 있었다던 일에 대한 변명을 하려 한 것이지만, 이야기를 듣는 해린의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적절한 리액션, 이야기를 듣는 호기심 가득한 눈은 성욱을 계속 이야기 하게 만들었다.

성욱의 이야기를 들은 해린은 다시 질문했다.

“지치지 않아요? 저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성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포기려고 마음먹은 적도 몇 번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든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해린은 놀란 듯 멍한 표정을 짓다 웃었다.

“그게 뭐예요. 그래도 재밌네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밝게 웃는 해린의 모습. 이후에도 현재 즐기고 있는 취미나 읽었던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해린의 웃는 모습은 계속해서 성욱의 마음을 조금씩 두드려갔다.

한시간정도 지났을까, 해린이 말을 더했다.

“오래 앉아있기도 했고,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제안에 성욱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둘은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었다. 해린의 심심했다는 말이 진짜인 것처럼, 한강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다. 처음 본 사람이 아닌 것 처럼, 마치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린은 성욱의 실수에 다독여 주고 웃어주었다. 그리고 성욱의 마음은 점점 확실해져갔다.

어느덧 시계는 밤 8시를 향했다.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바라보는 해린, 성욱은 그녀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제 가볼 시간이에요.”

아쉬움을 먼저 보인건 해린이었다. 그런 해린의 얼굴을 보자 성욱의 마음은 더 크게 흔들렸다. 거절당하는 두려움보다 해린과 다시 못만나게 되는 두려움이 더 큰 성욱은 용기를 내어보기로 결심하였다.

“혹시 내일 시간되시나요?”

해린과 성욱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맞을 걸 미리 아는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고 가볍게 떨고있는 성욱을 보며 해린은 성욱의 생각을 어느정도 눈치를 챘다.

“글쎄요? 안되려나?”

“아...”

실패인가 하는 허탈함이 성욱의 표정에 드러나자 해린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장난이에요. 아마 내일도 심심할 예정일걸요?”

성욱의 표정은 또 다시 바뀐다. 생애 첫 ‘한번’에 된 데이트 성립이었다.

“그럼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둘은 번호를 교환하고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다.

집에 도착하면서까지 성욱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웃을 갈아입으면서도, 씻으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건축도안들을 주우면서도 성욱은 실없이 웃고있었다. 아마 성욱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봤더라면 미친 건 아닌지 걱정하셨을 것이다.

성욱은 가방에서 시계가 담긴 병을 꺼냈다. 해린과의 만남을 주도해준 이 시계는 아마 성욱의 마음 속에서는 평생의 보물이 될 것이다. 기쁜 마음을 자축하고자 냉장고에서 냉동 곱창과 테라 한병을 꺼냈다. 맥주를 마시면서 한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데이트 코스를 검색했다. 오늘 있었던 자잘한 실수들을 만회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북마크를 찍어가고, 인스타그램을 뒤지며 좋은 데이트 코스를 그려갔다.

해린에게 문자가 온 것은 자정이 되기 약 11시, 오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죄송해요 내일은 못볼 것 같네요.’

성욱은 다시 허탈감에 빠졌다. 아니면 은근히 이럴 줄 알고있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삶에서 한번에 된게 어디있으랴, 한번에 받아준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본 해린씨는 나를 비웃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성욱은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든 오른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멤돌았다.

“노력하면 뭐해...난 네 마음, 잘 모르겠어...너 자신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거 같아”

성욱은 눈물을 한 방울 흘려보냈다.

좀 진정이 됐을까. 성욱은 탁자위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해린을 만나게 해준 보물은
2시간도 안되서 다시 골동품이 되었다.

코르크 마개를 열어 안에 있는 시계를 꺼내보았다. 시계와 함께 한 글귀가 써있는
쪽지도 함께 나왔다.

‘For Your Tomorrow’

성욱에게 내일은 없었다. 이 짧은 글귀가 성욱에게는 마치 놀리는 듯이 보였다.

쪽지는 던져두고 시계를 보았다. 브랜드는 보이지 않지만 싸구려 시계같아 보이진
않았다. 그러든지 말든지, 성욱은 상관 없었다. 이 시계는 자신이 실수했던 모든 시간과
함께 돌아가고있던, 그리고 돌아가는 시계였다. 해린씨를 만났던 시간에도 이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계속 시계는 돌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성욱이 어떤 실수를
하던지 말이다.

영어가 써있다는 건 외국에서 왔다는 걸까. 시계가 현재 시간과는 맞지 않았다.

성욱은 시계를 돌렸다. 시침과 분침을 돌려 약 11시 43분 위에 올려주고 시계를
맞췄다.

그리고 무거워진 눈꺼풀을 감았다.

“손님.....? 손님!”

눈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성욱은 놀라 눈을 떴다. 어디서 본 종업원, 낯익은 카페,
기억 속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양화대교 위 카페.

성욱은 놀라 머뭇거렸다. 이상하다. 분명 아까까지 자신은 집에 앉아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밤이었던 바깥은 낮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아까입은 옷
그대로였다. 달라진 게 있다면 손에있는 손목시계 뿐이었다.

“크흠“

놀라있는 성욱의 앞에 카페 종업원이 헛기침으로 성욱을 불렀다. 성욱은 놀란 표정
그대로 카페 종업원을 바라보았다. 종업원의 얼굴에는 꽤 짜증과 화가 차있음이
느껴졌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2019학년도 2학기 스크린라이팅 종합설계 (담당교수:이동은)

성욱은 마른 입에서 침을 짜내 삼키며 말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